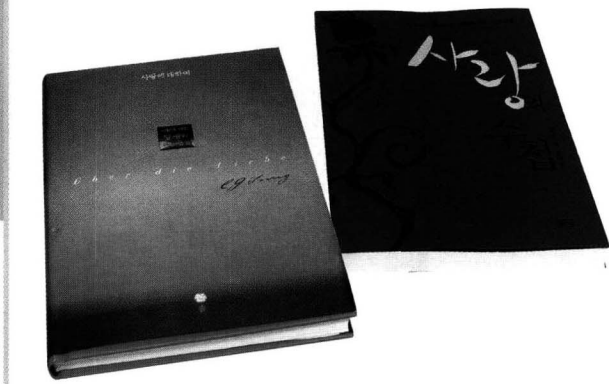


《사랑의 수첩》 《사랑에 대하여》

사랑에 아파본 적 있나요

글_송보경 기자



《사랑의 수첩》 안토니오 갈라 지음 | 유혜경 옮김 | 들녘 | 303쪽 | 값 9,500원
《사랑에 대하여》 사랑에 대한 칼 융의 아포리즘 마리안느 스위스 엮음 | 한오수 옮김 | 솔 | 178쪽 | 값 10,000원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 평범한 삶에 불쑥 찾아온 낯선 존재에 마음을 사로잡힌 후 그는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에 빠진 이' 들이 보이는 행동 법칙을 고스란히 따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간 동안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에 겨운 얼굴을 보이던 그가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에 진척이 없자 점차 생기를 잃어갔다. 생각은 온통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불면증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 괴로워했다. 누구나 그렇듯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의 병 탓이기 마련인데 사랑으로 인한 심신의 괴로움은 그 처방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 뿐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혹하다.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라더니 (사랑 타령은 배부른 소리다! 라고 호통 치는 이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술한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 라는 덧없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사랑은 우리의 골수와 뼈를 빼가고, 가장 깊은 곳을 침략한다. 그리고 끝을 내는 순간 우리 자신마저 빼앗아간다. 사랑을 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라. 바라지 말고 공짜로 사랑을 주어라. 장난감도 사탕도 아닌 그저 전부를 원하는 아이들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삶마저 순순히 잃어버릴 각오로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존재한다” (《사랑의 수첩》中).

스페인 작가 안토니오 갈라라는 사랑을 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책 《사랑의 수첩》에서 사랑은 모험이 동반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사랑이 없었다면 내 작품이 결코 성숙해지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긴장감을 준다” 라고 말했던 작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번쯤 경험했을 사랑의 환희와 아픔, 형용할 수 없는 그 순간의 가치를 문학적 언어로 새롭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현재의 자신에게 별 효용이 없다면 누군가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의 러브 아포리즘을 모은 《사랑에 대하여》를 살펴보면 평생 개인의 내면 세계를 연구해온 융에게 '사랑' 은 과연 필연적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사랑의 문제는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는 거대한 산처럼 여겨진다. 나의 삶, 그리고 의사로서의 경험은 끊임없이 내게 사랑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코 그 문제에 대해 타당한 답을 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열병에 걸린 듯 뜨겁고 치열한 남녀 사이의 사랑보다는 포괄적 의미의 '사랑' 을 분석한 융은 사랑의 본질이 인간 내면과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사랑은 깊고 진실한 감정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기분일 뿐이다. ... 사랑은 종교적 신념과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점을 갖는다. 신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신의 은총을 향유하게 되는 신앙인처럼, 사랑은 조건 없이 감정을 헌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만 최고의 신비와 기적을 보여준다” (《사랑에 대하여》中).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정의와 기준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누군가를 향해 진이 빠질 정도의 열정을 쏟아 사랑하길 권하고 바라지만 사랑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사랑의 문제는 인류가 겪고 있는 커다란 고통” 이라던 칼 융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랑은 병이 아니라 죽음” 이라는 작가 안토니오 갈라의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